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김문희*

— <차 례> —

1. 서론
2.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의 양상
 - 1) 효우담으로서의 유연의 서사
 - 2) 성군담으로서의 태자의 서사
 - 3)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의 특징
3.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과 독서 과정
 - 1) 상호텍스트의 다층적 구성 파악과 지식 소통의 독서
 - 2) 상호텍스트의 의미 파악과 자기 의식 수련의 독서
 - 3) <유효공선행록>의 통합적 의미 파악과 공감과 비판의 독서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의 특질을 논의하고 이러한 서사 구성이 독자의 독서 과정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선행텍스트는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이다. <유효공선행록>의 메인스토리인 유연의 서사는 ‘우순의 서사’ 중 우순의 효우담을 근간으로 하여 유연의 효우담을 구성하였다. <유효공선행록>의 서브스토리인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서사’ 중 우순의 성군담과 ‘명효종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효종의 성군담을 근간으로 태자의 성군담을 구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효우담으로서 유연의 서사와 성군담으로서 태자의 서사는 선행텍스트를 상호보완적 관계로 통합한 것이며, 성군담으로서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성군담과 함께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학부 조교수.

명효종의 성군담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서사를 중첩적으로 재현하여 <유효공선행록>을 다층적인 상호텍스트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은 독자의 독서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텍스트와 지적인 소통을 활성화한다. 독자는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반복소를 찾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지적인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고 분석적 소설 읽기를 하게 된다. 또한 2차적 독서 과정에서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당대의 윤리적 가치를 자기 신념으로 삼으면서 자기 의식을 수련하는 독서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차적 독서 과정에서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을 읽으면서 효유의식과 성군에 대해 공감과 비판의 양가적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주제어 유효공선행록, 우순의 서사, 명효종의 역사,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 독서 과정

1. 머리말

고전소설에는 다른 텍스트의 내용들이 수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시, 사, 민요 등의 삽입은 타장르가 고전소설 속에 들어오는 경우이고, 유사한 주제, 사건, 인물, 구성 원리와 같은 요소가 동일한 장르인 고전소설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은 문학 텍스트 외에 역사, 철학, 예술 등 다른 문화 텍스트의 영향 관계 속에서 창작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른 텍스트의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고전소설을 창작하는 것은 고전소설의 일반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을 한 문학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텍스트간의 상호 관련성이라고 본다면 상호텍스트성은 고전소설이 태생적으로 가지게 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¹⁾이라는 용어는 우리 고전 문학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서양 문학 연구자들이 그들의 문학과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상호텍스트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에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연구자에 따라 상호텍스트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이란 주어진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인용문이나 언급의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을 말한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며 한 문학 텍스트는 단순히 다른 문학 텍스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아니라 다른 기호 체계, 문화일반까지 포함하기도 한다²⁾고 본다.

하지만 고전소설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논의할 때는 넓은 의미의 상호텍

1) 서양 문학의 상호텍스트성을 논의한 대표론자는 바흐친, 크리스테바, 토도로프, 조너선 칼러 등이다. 바흐친은 소설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자이크처럼 배치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다성성으로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그후 크리스테바는 바흐친의 대화성 이론을 수용하여 이것을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개념화하였다. 크리스테바는 상호텍스트성을 한 텍스트가 그 텍스트 이전의 담화나 동시대적인 담화의 영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텍스트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여러 인용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고 변형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토도로프는 어느 한 담론이 다른 담론과 맺고 있는 상호관련성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담론과의 관련성 없이는 어떠한 담론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을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였다. 조너선 칼러는 “시(문학 일반)는 다른 시 그리고 독서 관습과의 관련성을 떠나서는 쓸 수 없다. 시가 시로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련성 때문이며, 그 위치는 그것이 출판된 뒤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약 나중에 의미가 변한다면 그것은 그 뒤에 쓰인 책과 새로운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상호텍스트성』,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2004, 179~190쪽.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지음, 『상호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2004, 202~207쪽.

2) 김옥동(2004), 위의 책, 191~192쪽.

스트성이나 주체의 해체와 같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보다는 좁은 의미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다른 텍스트의 지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그 자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 연관되어 구성된다는 텍스트간의 관련성으로 보고 연구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을 고전소설이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성은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실체는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명할 수 있는 연구 시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유효공선행록>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과 이러한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이 독자의 독서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유효공선행록>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효공선행록>은 유연의 효우담을 통해 지극한 효우의식을 드러내어 유교적 이념을 구현하고 가문을 화합하는 국문장편소설이다. <유효공선행록>에는 효행과 우애의 대명사가 되는 순임금의 효우담이 유연의 효우담에 대응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공선행록>은 어떤 고전소설보다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을 전면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효공선행록>의 기존 연구에서는 유연의 효우의식, 갈등의 구조와 의미, 작가의식, 가문소설로서의 소설사적 의의, 유연의 형상화와 여성 수난담의 성격, 서술시각과 독서심리 등 풍부한 연구결과³⁾가 제시되었다. 기존 연구 중에서 상호텍스트적 연구 관점으로 <유효

3)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 국

공선행록>을 논의한 것은 없지만 작가의식을 논의하면서 순임금의 효행담과 유연의 효행담, 태자의 효행담의 상동성과 그 의미가 지적된 바가 있다. 박일용은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을 논의하면서 虞舜의 효행담과 유연의 효행담, 태자의 효행담 구조가 유사한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태자의 효행담을 드러낸 것은 유연의 효행이라는 이념을 매개로 하여 현실적 갈등을 해소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태자의 효행담을 제시하여 정치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서술자가 표방하는 이념의 관념적 성격을 읽어낼 수 있다⁴⁾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상호텍스트적 관점으로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을 새롭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성은 작가가 소설을 쓰는 창

어국문학과, 1990.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孝友의 의미와 作家意識」, 『선정어문』 19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최길용, 「유효공선행록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07집, 국어국문학회, 1992.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문제」,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閩閩家門의 自己更新」, 『한중인문학연구』 16집, 한중인문학회, 2005. 조광국, 「閩閩小説의 孝 具現樣相에 대한 연구-閩閩小説 전개의 한 측면」, 『어문연구』 12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에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집, 한국문학회, 2005.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혜>의 응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호, 배달말학회, 2009. 김문희, 『劉孝公善行錄의 인물에 대한 共感과 距離化의 讀書心理』, 『어문연구』 15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이지하, 「대하소설 속 親同氣간 善惡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4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13. 강우규, 「유효공선행록의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어문논집』 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孝悌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집, 우리문학회, 2014.

4) 박일용(1995), 위의 논문, 163~164쪽.

작 행위와도 관련되지만 독자가 그러한 텍스트를 읽는 독서 행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작가가 고안한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과 이것을 읽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제에서 본 연구는 <유효공선행록>의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 방식과 독자의 독서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유효공선행록>의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 양상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이런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이 독자의 독서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텍스트의 의미 해석에 기여하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 텍스트는 『필사본고소설전집』15, 16(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0년)에 영인되어 있는 12권 12책의 <유효공선행록>이다.

2.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 양상

<유효공선행록>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은 <유효공선행록>에서 나타나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을 단서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유효공선행록>이 참고한 텍스트는 선행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유효공선행록>은 후행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에는 고대 우리나라 순임금의 서사와 명나라 효종(성치제)의 서사가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와 대응되게 구성되어 있다. 우순의 서사와 명나라 효종의 역사는 <유효공선행록>에서 단순한 언급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효공선행록>의 구체적 서사 구성에 관여한다. 그러므로 <유효공선행록>의 선행 텍스트는 ‘虞舜의 서사’와 ‘명나라 효종(성치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순의 서사’는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⁵⁾, 『서경』

5)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 『사기본기』, <오제본기(五帝本紀)>, 까치, 1994.

의 <우서(虞書)>⁶⁾에서 가장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고 <유효공선행록>에도 이런 선행텍스트의 흔적과 징표가 잘 드러나 있다.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나는 ‘우순의 서사’의 흔적과 징표를 상호텍스트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명효종(성치제)의 역사’는 명나라 역사를 기록한 『明史』, 『대명실록』과 같은 정사와 명나라의 역사, 풍물, 문화 등을 기록한 문헌과 문집 등에도 서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순의 서사’, ‘명효종의 역사’가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효우담으로서의 유연의 서사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의 <우서(虞書)>에 나타나 있는 ‘우순의 서사’는 우순의 효우의식과 성군의 자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중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는 우순의 성군의 자질보다는 우순의 효우의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순의 서사’와 유연의 서사에서는 인물 구성과 사건 구성의 유사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의 <우서(虞書)>의 우순 서사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서사
인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순: 지극한 효성과 우애의식을 가짐. · 고수: 순의 아버지로 맹인, 도덕을 모르고 무도함. · 계모: 고수의 후처로 험담을 잘 하며 자기 소생을 편애하며 순을 죽이고자 함. · 상: 순의 이복 동생, 오만하고 교만방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 지극한 효성과 우애의식을 가짐. · 유정경: 유연의 아버지로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며 편벽되고 어리석음. · 유홍: 유연의 동생, 간사하고 교활하며 아첨하기를 잘 하고 시기심이 많음.

6)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서경집전』, <우서(虞書)>, 전통문화연구회, 1998.

<p>사건 구성</p>	<p>① 고수와 상이 순을 죽이려고 하여 순에게 창고에 올라가 벽토를 바르게 하고 아래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버림. 순은 두 개의 샷자로 자신을 보호하며 창고에서 뛰어내려 도망쳐서 죽음을 모면함.</p> <p>② 고수와 상이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하고는 흙을 퍼부어 우물을 메워버리고 순을 죽이려 함. 순은 몰래 파놓은 비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와 살아남.</p> <p>③ 순은 고난 속에서도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동생과 화목하였으며 고수, 계모, 상을 개과하게 함.</p>	<p>① 유홍은 요정에게 뇌물을 받은 일과 형수인 정씨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지은 거짓 가사가 유연에게 탄도 날카봐 유정경에게 유연의 죄를 거짓으로 고해 유연을 모함함.</p> <p>② 유홍은 온갖 흉계로 유연을 해치려고 하고 유정경은 적장자 자리에서 유연을 폐하여 유홍을 적장자로 삼고 유연과 정씨를 취설각에 유폐시킴.</p> <p>③ 유홍은 간계를 부려 요정, 만엽과 협동하여 유연이 과거를 보게 하고 유연이 장원으로 뽑히는 날 천자 앞에서 유연의 죄상을 말함. 유정서와 유씨 종족, 태자의 변호로 유연이 위기를 모면함.</p> <p>④ 천자가 후궁 만귀비를 총애하여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박대하자 유홍은 흉계를 내어 유연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리게 함. 천자는 유연에게 분노하여 수십 대를 치고 유배보냄.</p> <p>⑤ 유홍은 유배지로 향하는 유연을 죽이기 위해 하인을 매수하지만 정씨와 박상규의 도움으로 유연은 위기를 모면함.</p> <p>⑥ 유홍은 유연이 유배지에서 강생과 정부인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유정경을 부추겨 유연에게 칼과 편지를 보내어 자결하라고 함. 유연은 정씨와 강생과 헤어지고 유정경에게 속죄하는 답장을 보냄.</p> <p>⑦ 유정경은 우연히 초서당에서 유홍의 악행과 관련된 편지를 보고 60대의 매로 유홍을 다스리고 유정경은 유연에게 편지를 보냄. 유홍은 중간에서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편지로 바꾸어버림.</p> <p>⑧ 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만귀비 일파와 유홍의 죄상이 밝혀지고 유홍은 유배를 가게 됨.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연은 효성으로 유정경을 모시고 10년만에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홍을 우애로 대하고 유홍은 개과함.</p>
------------------	---	---

먼저 인물 구성에서부터 ‘우순의 서사’와 유연의 서사는 흡사하다. ‘우순의 서사’에서는 순을 죽이려고 하는 계모가 있지만 유연의 서사에서 계모 주씨는 어진 성격이라는 점이 차이날 뿐, 효우관인(孝友寬仁)한 아들, 어리석은 아버지, 악한 동생이라는 인물 성격의 구성은 동일하다.

사건 구성에서도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두 서사의 핵심적 뼈대는 유사하다. ‘우순의 서사’가 고수와 상의 계략에 의한 ‘순의 고난 - 고난 극복 - 순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 - 고수, 상, 계모의 개과’라는 구조로 되어있다면 유연의 서사는 유홍의 계략에 유정경이 속아 넘어가 유연의

고난은 시작되고 ‘유연의 고난 - 고난 극복 - 유연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 - 유정경, 유흥의 개과’라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유연의 서사의 ‘고난과 고난 극복’의 상황이 ‘우순의 서사’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연은 자신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주변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모면하기도 하는데 고난의 측면에서 유연은 순보다 우여곡절을 더 겪는다. 이것은 짧은 ‘우순의 서사’와 분량상 훨씬 많고 다대한 갈등 상황을 사건화하는 소설 장르인 <유효공선행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연의 서사는 ‘우순의 서사’를 기본으로 하여 유연의 고난 상황을 복잡하게 소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의 행동의 전범이 되고 의식을 규정하는 것은 효우의 대명사인 ‘우순’이다. 유연은 순의 효우를 거울삼으면서 순의 효우에 빗대어 자신을 담금질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유효공선행록>의 서술 문면에 자주 나타난다. 또한 유연의 주변 사람들도 유연과 순을 비교하면서 유연의 대효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도 <유효공선행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 여러 달이 되미 가너 날로 불평하고 공직 덤 〃 너당의 즈취 드물고
혹 스오일의 한 번식 드러오이 〃 시나 미양 미우를 쟁기여 울고즈흔는 스식
썩이오 입을 열어 호화흔 말이 업스니 이는 그 야 〃 의계 득지치 못흔를 설위
하고 동심의 뜻이 갈니이물 한흔여 일야의 싱각는 비 중 〃 네흔여 불격간흔
신던 대효를 흠양흔티 본바다 감화코즈 흔는 믿음이 즈 자기와 밥 먹기를
폐흔니⁷⁾

7)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고소설전집』 15, 아세아문화사, 1980, 66~67쪽.

② 간의턱우 유정세 출반두왈 신은 정경의 스촌이니 그 집닐를 엇지 모로
 띛고 연의 성품이 효우 밧근 나몬 거시 업고 크게 인즈호여 닌니 향당이 다
 저를 디순 이후 혼스름으로 이르던 비라⁸⁾

③ 공이 크게 탄왈 이도 네 므음 쓰기를 과도이 호여 중해 대화로되 고슈
 의 부즈호를 만나 우물의 굽글 쭈루며 불 가온되 썬여 드라나미 이비를 두시
 고 탄금슬호시니 네 이제 닌 명을 거슬여 칼을 머무러 죽지 아니코 글을 지
 어 정을 펴미 동화의 적덕을 추모호미로되 홀노 심너를 허비호미 탄금호시
 닛되 불급호고 도로려 한해의 적은 뜻을 본바다 의 쓰기의 피토호미 잇고
 우름이 혈누 나기의 밋츠니 비록 나의 본심으로 너를 보치여도 네 맛당이
 이러치 아니려든⁹⁾

①은 유연이 유흥의 모함에 의해 아버지 유정경으로부터 장책을 당하
 고 아우 유흥과 화목하지 못하고 아버지 유정경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의
 상황을 비판하는 대목이다. 유연은 “아버지에게 뜻을 얻지 못하고 아우와
 뜻이 다른 것을 한하여 밤낮으로 증증예 불견각하던 대효를 흠양하며 본
 받아 아버지와 아우를 감화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과 밥 먹
 는 것을 잊을 정도로 고민한다. “증증예(烝烝乂) 불격간(不格姦)”이라는
 구절은 순이 극진한 효로 점점 잘 다스려 완악한 아버지와 사나운 계모와
 거만한 아우를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한다는 뜻으로 『서경』 <우서(虞
 書)>의 ‘요전(堯典)’의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순이 했던 효우
 를 행동 규범으로 삼고 있는 유연은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하고 아우와 화
 목하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②는 유연이 과거에 나가 급제를 하자 유흥과 결탁한 요정과 만엽이 천

8) 김기동 편(1989), 위의 책, 158쪽.

9) 김기동 편(1989), 위의 책, 434~435쪽.

자 앞에서 유연이 인륜을 어그러뜨린 죄인이라고 간하자 유정서가 나와 유연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유정서는 유연을 “효우하고 인자하여 마을 사람들이 대순 이후에 한 사람”이라고 이른다며 순과 유연을 동일한 존재로 평가한다. 이처럼 유연의 사람됨을 평가할 때 순을 거론하여 유연과 순을 동일시하는 것을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③은 7년 유배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연이 피를 두어 말이나 토하고 쓰러져 반나절 만에 정신을 차리자 개과한 유정경이 아들의 병을 걱정하며 하는 말이다. 유정경은 유연이 대효하다는 점은 우순과 동일하지만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순의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무란다. 유정경은 “우순이 대효(大孝)이지만 고수의 자애롭지 못함을 만나 우물에 구멍을 뚫었으며, 불 가운데서 뛰어내려 와서 이비(二妃)를 두시고 거문고를 타신 것”과 “유홍의 간계로 유연을 오해하여 자결하라고 칼을 보냈지만 유연이 죽지 않고 편지를 지어 정을 편 것은 우순의 덕을 따른 것이나 홀로 심려를 써서 병에 이른 것은 우순이 이비(二妃)를 두시고 거문고를 타신 것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우순이 상과 고수의 계약으로 우물에 갇히자 미리 파놓은 구멍으로 나오고, 또 상과 고수가 창고에 올라간 우순을 죽이려고 불을 지르자 우순이 불속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건지고 이비와 부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은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유연의 행동은 순의 행적과 비교하여 칭송을 받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유효공선행록>의 메인스토리인 유연의 서사는 인물 구성, 사건 구성, 구체적 서술에서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의 <우서(虞書)>에서 나타나는 우순의 효우담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을 읽

는 당대 독자라면 인물 구성, 사건 구성, 구체적 서술에서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의 <우서(虞書)>의 ‘우순의 서사’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2) 성군담으로서 태자의 서사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의 서사와 함께 주목되는 것은 태자의 서사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 태자의 서사는 유연의 서사에 비해 부차적 서사이지만 태자의 서사는 유연의 고난과 관련되거나 고난과 갈등의 해결과 관련되기도 한다. 박일용이 지적한 것처럼 태자의 서사는 유연의 서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태자가 유연처럼 순과 같은 액을 당하는 인물¹⁰⁾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천자와 후비인 만귀비가 효우관인한 태자를 궁궐에서 축출하고 태자는 얼마간의 고난을 겪다가 궁궐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태자의 서사가 유연의 서사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선행텍스트인 ‘우순의 서사’에서 유연의 서사가 의미화하지 않았던 어진 통치를 했던 우순의 성군담을 재현하는 부분이 더 많다. 또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명나라의 중흥을 이루었다는 ‘명(明)효종의 역사’를 서사화하여 유사한 성군담을 재현하고 있다.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의 <우서(虞書)>에서는 우순의 효우담과 함께 통치자로서 우순의 행적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순은 요임금의 선양을 받기 전에는 어질고 성실하며 근면한 모습으로 요임금의 신임을 얻게 되고, 제위에 올라서는 팔개, 팔원 등의 인재를 등용하고, 우, 고요, 설, 후직, 백이, 기 등의 신하에게 전문적인 직분을 주어

10) 박일용(1995), 앞의 논문, 163~162쪽.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공적에 따라 강등하고 승진시켰다. 또한 네 명의 악인과 그의 가족들을 변방으로 유배시키고 악인을 소탕하기도 하였으며, 죄의 동기와 내용에 따라 형벌을 달리하고 관리들에게 ‘오로지 형벌은 신중히 해야 하느니라’¹¹⁾라고 당부하면서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린다. 이처럼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의 <우서(虞書)>에 는 성덕을 지니고 잘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순의 행적과 자질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이러한 순의 성군담을 재현하고 있다. <유효공선행록>의 태자는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닌 것으로 성격화된다.

④ 태즈 비록 나히 어리시나 규피 임의 성인외 도을 어드샤 인명흐시미 노성흔 군왕갓하시니 뉴싱의 인눈지변을 참혹히 너기시고 정사를 통촉흐샤 미 맑은 거울이 빗치져 아녀셔 스스로 아르시니 님의 지귀군신이오 그 얼굴의 나타는 직조와 덕화를 혼 번 보와 심복흐샤 크게 공경흐고 사랑흐시미 이렇듯흐시니¹²⁾

이처럼 태자는 나이는 어리지만 어질고 명석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태자는 유연과 유흥이 지은 글을 보고 그들의 사람됨을 읽어내고 유연을 존경하며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자 한다. 유연이 병을 핑계로 태자의 스승이 되는 것을 거절하지만 태자는 유연에게 말미를 주어 유연을 가까이두고 싶어한다. 태자는 유연이 겪고 있는 유씨 집안의 참변을 모두 알고 있고 유연의 사정을 이해하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물이며 어진 군왕의 자질

11)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1994), 앞의 책, 12~27쪽. 성백효 역주(1998), 앞의 책, 35~104쪽.

12) 김기동 편(1980), 앞의 책, 174쪽.

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어리석은 천자는 만귀비의 참소를 믿고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조주로 내쫓는다.

㉕ 즉일의 태지 던폐의 하직고 발항하시니 빅관이 다 체읍혀여 니별홀시 태지 감연혀여 쏘흔 눈물 흘니고 손을 드러 사례하시더라 이에 도쥬를 순헝헝 시디 몸을 검박기로써 쳐햐샤 당요의 강구에 노르시물 효츄헝시고 테순이 창오의 순슈헝시물 범바드샤 헝헝시는 빅 녀디 데왕의 일반이시니 만민이 열낙혀여 왈 쇼년 턴지 이의 계시니 우리 등이 티평 못되플 근심헝리오혀더 라¹³⁾

위의 예문에서처럼 궁궐에서 나와 조주로 향하는 태자의 모습은 초라하지 않고 검소하며 백성의 질고를 살피고 순행하는 요임금과 순임금의 순행에 견주어지고 있다. 특히 “제순이 창오를 순행하시는 것을 본받아 행하시는 것이 역대 제왕과 같으시니 모든 백성이 기뻐하여 말하길 소년 천자가 이에 계시니 우리가 태평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겠는가”라는 대목은 태자의 조주 순행이 순이 창오로 순행간 것과 같으며, 태자가 순임금과 같은 성군의 자질을 가진 인물로 오버랩되게 한다.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모습은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 <오제본기(五帝本紀)>와 『서경』 <우서(虞書)>의 성군으로서 우순의 모습을 독자가 머릿속에 떠올리고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위 전부터 태자는 유연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자 했지만 여의치 못하고 천자가 되어서도 유연의 재덕과 충효를 잊지 못한다. 유연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태자는 유연을 부르고 유연은 3년만에야 대궐에 들어와 태자를 만나게 된다.

13) 김기동 편(1980), 앞의 책, 379~380쪽.

⑥ 상이 만심 환희하샤 무릅홀 스리시고 손을 꼬즈 칭샤 왈 딤의 박헌
지덕으로 황고의 성은을 넘스와 더위를 니옴으로브더 혹업하여 능히 정스를
넛지 못하디 그 스위 업스니 선싱 싱각기를 얼골 드스리기의 거울긋치 녀겨
시디 감이 일위지 못하더니 금일 괴산의 절 나초와 직설의 일을 하고저 홀지
니 딤이 비록 요순의 덕이 업스나 기리 군신이 믿음을 한가지로 하여 티평을
안락고즈 하니니 엇지 오늘 곱튼 날을 허송하리오 하여 텃안의 회기 무르녹
아 춘풍이 동하니¹⁴⁾

태자는 유연이 올지 안 올지 조바심을 내다가 유연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유연이 기산의 절개를 낮추어 직설의 일을 하고자 하니 짐이 비록 요순의 덕이 없지만 기리 군신이 마음을 한가지로 하여 태평성대”를 만들자고 말한다. 요는 우, 고요, 설, 후직, 백이, 기 등의 신하를 등용했지만 전문적인 직분을 내리지 않았고 순이 즉위해서야 이들에게 직분을 내려 다스리게 하였다. 태자는 유연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고 환로에 나온 것을 순이 직설과 같은 신하를 쓴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태자의 의식과 말은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 <오제본기(五帝本紀)>, 『서경』 <우서(虞書)>의 우순의 성군담을 근간으로 하여 이것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명나라 효종(성치제)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명나라 효종(성치제)의 역사는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선행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시간적 배경은 ‘대명 성화 연간’인 명나라 제8대 황제인 현종 때이다. <유효공선행록>은 현종(성화제)-효종(성치제)의 역사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은 현명하

14)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고소설전집』 16, 아세아문화사, 1980, 226~227쪽.

지 못한 천자인 현종과 어진 정치로 ‘홍치중흥(弘治中興)’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효종과 천자의 후궁인 간악한 만귀비를 상징하여 소설화하고 있고 독자는 이런 배경을 인지하고 <유효공선행록>을 읽게 되는 것이다. 명효종의 역사는 명나라 역사를 기록한 『明史』, 『대명실록』과 같은 정사 뿐만 아니라 명나라의 역사, 풍물, 문화 등을 기록한 박물학적인 기록인 『사우재총설(四友齋叢說)』,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과 같은 문헌, 문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효종의 역사¹⁵⁾와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명효종의 역사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
즉위 전 태자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종(명7대 황제)에게 총애를 받던 후궁 만귀비는 현종의 아이를 임신한 후궁들을 강제로 낙태시키고 매질하거나 독살하는 행위를 일삼았고 황후 오씨를 모함하여 폐위시킴. · 요족 출신의 후궁 기씨가 현종의 총애를 받고 아이를 임신하게 됨. 이를 안 만귀비가 온갖 방법으로 기씨를 낙태시키려고 했지만 폐위된 오황후, 환관 장민, 희은을 비롯한 궁녀들의 도움으로 효종을 낳게 됨(성화 6년, 1470년). · 성화 11년(1475년) 현종은 문득 자신을 이을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자 곁에 있던 환관이 기씨가 낳은 아들이 몰래 양육된 사실을 고함. 현종이 매우 기뻐하며 아들과 상봉하고 황태자로 책봉함. · 만귀비는 여러 차례 효종을 독살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기씨는 독살당하고 환관 장민도 만귀비의 보복이 두려워 금을 삼키고 자살함. · 현종은 효종의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박학다식한 정민정, 평화, 유건 등을 불러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효종은 영민하게 성장하게 됨. · 성화 23년(1487년) 만귀비는 58살의 나이로 병들어 죽고 그녀의 죽음에 상심한 현종도 몇 달 뒤에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자는 나이가 어리지만 성숙하고 영민함. · 천자가 후궁 만귀비를 총애하자 만귀비는 황후를 참소하고 천자는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박대하며 만나지 않음. · 만귀비가 다시 천자에게 태자를 참소하자 천자는 태자를 조주로 순행하게 함. · 황후는 천자의 박대와 만귀비의 간악한 참소가 심해지고, 태자를 만나지 못하자 병이 들어 죽게 됨. · 황후의 죽음을 알게 된 태자는 궁궐로 돌아와 임종을 받들지 못한 것을 밍달므로 슬퍼하고 천자가 태자를 위로함. · 천자가 갑자기 병을 얻어 죽음을 맞음.

15) 앤 팔루던, 이동진·윤미경 공역, 『중국황제』, 갑인공방, 2004, 170~180쪽. 진순신 지음, 박현석 옮김, 『진순신 이야기 중국사』 6, 살림, 2014, 167~175쪽.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412쪽, 444쪽, 445~446쪽. 陳時龍, 『守成令主-朱祐樞小傳』, 『紫禁城』, 故宮博物院, 2009, 8期, 24~25쪽. 林廷清, 『明史研究的新成果-《弘治帝》讀后』, 『史學集刊』, 1996, 3期, 78~79쪽.

<p>즉위 후 천자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87년 효종은 홍치(弘治) 연호를 쓰고 제위에 오름. · 현종이 즉흥했던 도사와 승려를 추방하고 죄악이 심한 방사(方士) 이자성, 승례 계효에게는 사형을 내리고 이들의 부정을 엄격히 단속함. 환관과 외척 등 많은 무리들을 치죄하고 폐정을 개혁함. · 현명한 신하와 인재를 등용하여 유건, 사천, 구준, 이동양 등을 대학사로 삼고, 왕서를 비롯한 6부의 수장들을 뽑아 국사를 돌게 함. · 효종은 대신과 자주 만나 토론하고 대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형 집행 때도 신중했으며, 세금을 줄여 민생 안정에 힘씀. 대명률을 개정하여 문형조례를 반포, 대명회전을 개편하여 법규를 정비하여 치적을 쌓음. · 효종은 사치와 호화를 반대하고 근검과 절약을 몸소 실천함. · 홍치 18년(1505년) 효종은 감기 몸살로 어의가 가져온 약을 먹고 코피를 쏟으며 쓰러져 승하하자 모든 백성들이 애도하며 슬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자가 즉위하여 개원을 홍치 원년으로 함. · 만귀비는 궁인과 함께 천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발각되고 천자는 만귀비의 삼족을 멸하고 만귀비 일파를 죽이거나 죄를 줌. 그러나 천자는 선제를 생각하여 만귀비는 죽이지 않고 복궤의 심공에 가둠. · 천자는 간악한 신하를 폐하고 정관, 정서, 유언 등의 신하를 가까이 두고 천하의 인재를 등용함. · 천자는 검소하고 소박한 것을 숭상하고 후비가 사치하지 않도록 하여 아름다운 덕과 밝은 정사를 펼. · 천자는 유언이 임종할 때 찾아가 위로하고 왕례(王禮)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효문공이라는 시호를 줌. · 3~4년의 시간이 흐르자 천자도 승하함.
--	---

명효종의 역사와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의 공통점은 즉위 전에는 태자가 만귀비에 의해 갖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즉위 후에는 태자가 만귀비 일파, 외척, 환관 등을 치죄하고 간악한 신하를 폐한다는 것, 어진 인재를 뽑아 신하로 등용한다는 것,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이다. 이런 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명효종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명나라 효종의 역사가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로 선택되는 이유는 명효종의 어린시절의 고난과 이것을 이겨내고 성군이 되는 극적인 스토리 때문일 것이다. 효종의 어린시절은 궁정의 암투에 둘러싸인 한편의 극적인 전기와 비슷하다. 효종은 흉악한 만귀비의 위협을 피해 극적인 유년시절을 보내고 살아남아 즉위하여 정치를 바로 세우고 명나라의 중흥을 이끈 황제가 된다. 『明史』에서는 효종을 평가하기를 “성화(명헌종) 치세 이래로 태평무사한 분위기에 탐닉하기 일쑤고 노는 것을 좋아하였

다. 풍부하니 점점 사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효종은 홀로 공손하고 검소하여 절제할 줄 아니, 성실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사랑하였다. 진실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흥하게 하니, 나라의 질서가 잘 잡히고, 만백성이 행복하다.”¹⁶⁾고 하였다.

이와 같은 효종의 성군의 면모는 인과 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우순의 성군담과 중첩되는 지점이다. 성군의 전형인 우순의 성군담과 명나라 역사에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했다고 평가되는 효종의 성군담이 중첩되어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효공선행록>에는 우순의 성군담과 명효종의 성군담이라는 유사한 의미의 서사가 태자의 서사에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다.

[7] 이씨 흥치 텃지 등극하시므로부터 검박기를 숭상하시고 욕심을 밝히사 공중 후비의 오시 금슈를 더으지 아니시니 아름다운 덕과 붉은 정식 요순의 비홀지라 흐물며 명승상이 선계 지우하신 덕신으로 님군을 도읍스오미 일계를 우근히며 일반의 삼토포호고 일목의 삼악발하야 텃하 선비를 덕접하니 평싱 정식 혼갈갓치 빛노고 치화 날노 식로오나¹⁷⁾

천자가 된 이후에도 태자는 검소하고 소박함을 숭상하고 공중 후비가 사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천하의 선비를 대접하여 인재를 구하고 평생의 정사가 한결같이 빛나고 치화가 날로 새로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밝은 정사를 펼친다. 태자의 행동거지와 신하를 대접하는 것과 공적인 국사 처결은 요순에 비유될 정도이다. 인과 덕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인

16) 陣時龍(1996), 위의 논문, 24쪽.

17)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고소설전집』 16, 아세아문화사, 1980, 217~218쪽.

재를 구하여 쓰는 태자의 행적은 순이 어질고 성실하며 근면하여 백성과 요임금에게 칭송된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팔개, 팔원 등의 인재를 등용하여 바른 정치를 했던 순의 행적을 본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성군담과 명효종의 성군담을 동시에 구현한 서사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작자는 유가의 윤리사상에 의거해 인과 덕을 갖춘 통치자의 전형으로 우순과 명효종을 떠올리고 이것을 선행텍스트로 하여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3)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의 특징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를 살펴보면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의 특징을 논의할 수 있다.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는 선행텍스트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현하였고, 태자의 서사는 선행텍스트를 유사 의미의 중첩적 관계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유효공선행록>을 다층적인 상호텍스트로 만들고 있다.

우선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는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 <오제본기(五帝本紀)>와 『서경』 <우서(虞書)>의 ‘우순의 서사’의 효우담을 떠올리고 우순과 유연의 효우의 의미를 대응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사기본기』 <오제본기(五帝本紀)>와 『서경』 <우서(虞書)>의 ‘우순의 서사’에서 나타났던 우순의 성군의 행적을 떠올리고 태자의 행적과 우순의 행적을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한다. 유연의 서사가 유연의 효우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우순의 효우담을 참고하여 메인스토리로 구성했다면, 태자의 서사는 성군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해 우순의 성군담을 참고하여 서브스토리로 구성

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유효공선행록>은 선행텍스트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구성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유연의 서사에서는 선행텍스트의 우순의 효우담을 서사화하여 독자가 효우의식을 파악하게 하고 태자의 서사에서는 우순의 성군담을 서사화하여 독자가 성군의 자질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텍스트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선행텍스트의 내용 일부분만을 가져다 후행텍스트의 2개의 서사가 각각 메인스토리과 서브스토리로써 우순의 효우담과 성군담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구성하여 선행텍스트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고 이것을 독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의 묘미를 제공한다.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을 읽음으로써 선행텍스트의 두 가지 의미인 효우의식과 성군의 자질을 파악하고 그것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서사 층위에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선행텍스트인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를 참고하여 성군담이라는 유사 의미를 중첩적으로 재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사 의미의 중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에서 태자의 서사는 기능적으로 유연의 고난과 갈등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서브스토리이다. 그러므로 태자의 서사는 유연의 서사에 비해 주도적이지 못하다고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성군담과 명효종의 성군담을 참고하여 구성한 것이다.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고난과 성군으로서의 통치 이야기, 명효종의 극적인 어린 시절과 성군으로서의 통치 이야기라는 구조적 유사성과 의미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태자의 서사는 고난을 이겨내고 인덕을 갖춘 유가적 성군의 모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독자는 태자의 서사에서 어진 통치자의 모습과 임금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효우의식과 인덕의 자질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은 유교의 핵심적 윤리이자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독자가 누구나 받아들이는 윤리와 자질을 후행텍스트인 소설에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선행텍스트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도 후행텍스트에서 변화를 주는 서사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익숙하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를 후행텍스트에서 선행텍스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스토리와 서브스토리 사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상호텍스트를 구성하기도 하고, 서브스토리 내에서 유사한 의미를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구성하는 등의 다층적 방식으로 상호텍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은 독자가 <유효공선행록>을 읽으면서 3가지 차원의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3.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과 독서 과정

1) 상호텍스트의 다층적 구성 파악과 지식 소통의 독서

국문장편소설의 향유층은 일부 사대부 남성과 사대부 여성들이다. <유효공선행록>의 독자층 역시 이와 비슷할 것이고, <유효공선행록>은 일부 사대부 남성과 사대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읽혔을 것이다. 모든 독자들이 동질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순의 서사, 명나라 성군인 효종(성치제)에 대한 지식은 <유효공선행록>의 독자층에게는 평균적인 교양으로 소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유효공선행록>을 읽을 때 독자는 가장 먼저 <유효공선행록> 안에 나타나 있는 선행텍스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선행텍스트가 후행텍스트 안에서 다층적인 구

성으로 서사화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이것을 <유효공선행록>과 같은 상호텍스트적 서사를 읽는 1차적 독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1차적 독서 과정에서는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반복소를 찾기 위한 독자의 지적인 독서 활동과 후행텍스트의 다층적인 서사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소설 읽기 활동이 활성화된다.

우선 독자는 <유효공선행록>를 읽으면서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반복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후행텍스트에서 선행텍스트의 징표와 흔적을 찾는 인지적 독서 활동을 하게 된다.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을 읽으면서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와 『서경』의 <우서(虞書)>의 내용을 떠올리고 명나라 효종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 안에서 선행텍스트를 소환하고 선행텍스트의 내용을 머릿속에서 상세히 재구성한다. 독자는 선행텍스트를 참조하면서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을 읽는 텍스트간의 지적인 소통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유사한 인물, 동일한 사건, 서술을 파악하게 된다. 텍스트간의 지적 소통은 <유효공선행록>에서 선행텍스트인 『사기본기』의 <오제본기(五帝本紀)>와 『서경』의 <우서(虞書)>, 명효종의 역사의 내용을 인지하고 이것을 재구성하는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 과정에서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독자가 유사한 인물, 동일한 사건, 서술과 같은 선행텍스트의 반복소를 후행텍스트에서 발견했다면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에서 선행텍스트의 요소가 다층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의 구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소설 읽기를 하게 된다. 독자가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에서 우순의 효행담이 재현되어 있고 태자의 서사에서는 우순의 성군

담과 명효종의 역사가 선택되어 태자의 서사로 배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소설에 대한 지식과 구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유효공선행록>에는 선행텍스트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구성되어 있기에 이러한 관련성을 독자가 파악하는 것은 소설 읽기에서 독자의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의 메인스토리와 서브스토리 차원에서 선행텍스트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유사 의미의 중첩적 관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소설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지식이 텍스트에 접목되는 지점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효공선행록> 읽기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 다른 텍스트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다양한 층위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으로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선행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하고 소설 구성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지식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이 불러일으키는 텍스트와 독자간의 지적인 소통이자 독자가 <유효공선행록>을 읽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상호텍스트의 의미 파악과 자기 의식 수련의 독서

<유효공선행록> 읽기에서 상호텍스트의 다층적 구성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러한 상호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에 재현되어 있는 ‘우순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에 재현되어 있는 ‘명효종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가를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유효공선행록> 읽기의 2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순의 서사’는 당대의 유교적 사회에서 끊임없이 유통되는 교화적 성격을 띠는 서사이다. 우순의 행적은 『사기』, 『맹자』, 『소학』 등에서 거론되며 효와 우애, 선의 의미, 통치자의 태도와 자세 등이 자세히 논의되고 재해석되면서 조선조 사회의 권위적 담론이 되었다. 명나라 효종 또한 『명사』, 『대명실록』과 같은 역사서와 명대의 문집, 문헌 기록 등에서 통치 기간동안 중흥을 이루고 유교적 통치 원리를 구현한 황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므로 ‘명효종의 역사’를 둘러싼 어린 시절과 즉위 후의 서사는 유가적 사유 체계를 가진 당대 지식인층에 깊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가 후행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에서 선택되어 소설적으로 재구성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극한 효우의식과 태평성대를 만드는 성군의 자질은 당대의 유가적 사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윤리이기 때문에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가 선택되는 것이다.

후행텍스트에서 선행텍스트의 요소가 재구성될 때는 선행텍스트의 원래의 의미가 후행텍스트에 그대로 재현되기도 하고 후행텍스트의 맥락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재현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선행텍스트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적으로 후행텍스트가 구성되고 후자의 경우는 선행텍스트의 의미를 비틀고 비판하기 위해서 상호 관련적으로 후행텍스트가 구성된다.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가 담지하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후행텍스트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서사화된다. 그래서 유연의 서사는 순과 같은 지극한 효우의식을 강화하는 의미를 전달하고, 태자의 서사는 순과 효종처럼 인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성군의 모습을 강화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독자도 상호텍스트의 다층적 구성을 인지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호텍스트의 의미 해석의 과정에서 독자는 당대의 유가적 윤리담론을 재인식하고 이것을 체내화하는 독서 경험을 하게 된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 태자의 서사는 독자가 효우의 의미와 성군의 자질을 재확인하게 하고 당대의 지배적 윤리 담론을 소설 읽기 과정에서 새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곧 독자는 효우의 식이 악인을 선으로 이끌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통치자는 인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통치자의 자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윤리적 가치를 당위적인 것으로 확신하는 태도는 독자가 자기의 윤리를 재점검하고 자기 의식을 단련하는 단계로 이끌기도 한다. 독자가 현실에서 효우를 실천하고 있는가, 일상생활에서 효우를 체내화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고, 인덕을 갖춘 통치자의 모습을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이것을 잘 다스린 통치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당대의 윤리적 가치를 자기 신념으로 삼고 자기 의식을 수련하는 독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당대 사회의 권위적 담론인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가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로 재구성됨으로써 <유효공선행록>의 읽기는 단순히 유교적 윤리를 파악하는 독서 차원에 멈추지 않고 독자가 윤리적 측면에서 일상을 돌아보는 성찰적 독서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독자는 텍스트와 윤리적 공감을 나눌 수 있고 <유효공선행록> 읽기 과정에서 윤리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3) <유효공선행록>의 통합적 의미 파악과 공감과 비판의 독서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구성과 그 의미를 파악했다면

이제 독자는 <유효공선행록> 전체의 통합적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선행 텍스트가 후행텍스트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는 최종적으로 <유효공선행록>이라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지금까지의 독서가 ‘우순의 서사’, ‘명효종의 역사’라는 선행텍스트의 요소가 후행텍스트에 구성되는 방식과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선행텍스트를 재구성하여 <유효공선행록>이라는 텍스트의 통합적 의미를 해석하는 읽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유효공선행록>의 3차적 독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차와 2차의 독서 과정이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반복소에 주목하여 그 요소와 의미를 찾는 것이었다면 3차적 독서 과정은 반복소뿐만 아니라 선행텍스트와 차이 나는 후행텍스트의 변이소를 고려하면서 <유효공선행록>을 읽고 통합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선행텍스트의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와 동일한 부분과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와 태자의 서사와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이것을 고려하여 <유효공선행록>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이러한 <유효공선행록>의 통합적 의미 파악의 과정에서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에 대한 공감과 비판이라는 2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우선 유연의 서사를 주목해보면 유연의 서사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유연의 서사 전반부는 선행텍스트인 ‘우순의 서사’의 지극한 효우담을 유연의 서사에서 그대로 재현한 것이지만 유연의 서사 뒷부분은 선행텍스트인 ‘우순의 서사’와의 관련성이 많지 않다. <유효공선행록>의 7권 이후부터는 새로운 갈등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유효공선행록>의 1권에서부터 6권까지는 ‘우순의 서사’와 유연의 서사는 깊은 관련성을 가지지만 7권 이후부터는 유연과 유정경, 유흥의 갈등은 해결 국면에 접어들고 유연과 아내 정씨와의 갈등, 유연과 아들 유우성과의 갈등이라는 새

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부터 선행텍스트와 관련성이 적어지고 <유효공선행록>의 새로운 서사 구성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간극이 생기고 효우를 바라보는 독자의 양가적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유연과 아내 정씨와의 갈등은 정씨의 처지와 상황보다는 효도와 우애를 먼저 생각하고, 가문을 먼저 생각하는 유연의 신념과 태도에서 비롯된다. 유연의 신념과 태도 때문에 지난한 고통을 당하는 정씨의 삶의 과정을 읽을 때마다 독자는 유연의 신념과 태도에서 과도한 부분을 감지할 수 있고 이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다. 유연과 유우성의 갈등은 풍류남아인 아들을 정인군자로 만들고자 하는 유연의 신념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씨와 정씨 집안에 대한 미움이 우성에게 전가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선행텍스트인 ‘우순의 서사’에서 순의 아우 상은 2번의 계략으로도 순을 해지치 못하자 곧바로 순과 화해하면서 회개하지만 유연의 서사에서 유흥의 회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12권에 가서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선행텍스트의 내용과 차이 나는 <유효공선행록>의 변이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이소는 소설 텍스트인 <유효공선행록>의 소설적 구성이자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이소에 의해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을 읽으면서 심정적인 공감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씨의 지난한 고난과 유연과 유우성의 갈등, 유흥의 늦은 회개는 ‘우순의 서사’에서처럼 효우의식만으로 현실에서 그리 쉽게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며, 가족의 문제가 녹록치 않는다는 것을 독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효우의식만을 강조하는 가부장의 태도를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시각¹⁸⁾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이점에서 우순의 서사를 끝

18) <유효공선행록>의 기존 연구에서도 유연의 효우의식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들이 유연의 서사를 만드는 전반부의 유연의 효우의식과 정씨의 우성과 갈등하는 후반부의 유연의 효우의식은 독자에게 양가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전반부의 유연의 효우의식에 독자가 공감한다면 후반부의 유연의 효우의식은 독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다. 실제 역사에서는 효종의 어머니 기씨는 정궁이 아니고 후궁으로 만귀비에게 독살당하고, 만귀비는 병으로 죽고 헌종은 만귀비의 죽음을 슬퍼하며 죽는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서는 효종의 어머니 기씨는 후궁이 아니라 정궁으로 변형되고 헌종이 만귀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정궁 기씨가 죽고 난 후 죽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효종이 제위에 오른 후에도 악행을 저지른 만귀비를 죽이지

이것은 유연의 효우의식을 비판적으로 읽은 경우이다. 이승복은 유연을 통해 효우라는 도덕적 당위의 이상적 실천상을 보여주면서 정씨의 고난을 통해 지극한 효의 실천이 다른 것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면에 잠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이승복(1990), 앞의 논문, 183~184쪽.) 박일용은 유연이 명분론적인 이념을 지키기 위해 가부장제적인 종속관계에 있는 부인과 아들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과정을 통해 명분론적 이념의 비현실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을 비판하였다.(박일용(1995), 앞의 논문, 169~170쪽.) 조광국은 인물갈등에서 ‘父에 대한 자의 일방적 무와 종속’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며, 부부 갈등에서 ‘夫에 대한 婦의 일방적 종속’에 대한 반성적 비판적 시선이 작품에 나타난다고 하였다.(조광국(2005),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閨閥家門의 自己更新』, 『한중인문학연구』 16집, 한중인문학회, 167~168쪽.) 김문희도 유연은 효우관인한 아들의 모습과 융통성 없는 고체한 가부장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효우의식과 가부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문희(2011), 앞의 논문, 253쪽.) 정혜경은 작가가 유연의 절실효수를 지지하면서도 그로부터 생성된 문제와 충돌의 현장을 고스란히 형상화해 호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독자로 하여금 고민케 한다고 하였다.(정혜경(2014), 앞의 논문, 319~320쪽.) 이와 같은 논의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유연의 효우의식의 양면성을 논의한 것이지만 당대의 독자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유효공선행록>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않고 선제를 생각하여 만귀비를 별궁에 가두고 만귀비 소생의 공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역사적 기록과 다르게 구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효공선행록>의 태자의 서사는 명효종의 실제의 역사보다 윤리적인 방향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역사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유효공선행록>에서는 바로 잡고 천자의 인덕을 균열 없이 강화하면서 어진 통치자의 모습을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자의 서사를 읽음으로써 독자는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와 그리고 태자의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의미화하는 인덕을 갖춘 통치자의 모습에 공감하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

선행텍스트의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효우의식과 성군의 자질이 <유효공선행록>에서 그대로 재현되거나 보다 강화될 때 독자의 공감은 커진다. 곧 선행텍스트의 ‘우순의 서사’와 관련성이 큰 전반부의 유연의 서사에서 나타나는 효우의식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명효종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성군의 자질이 강화되어 <유효공선행록>에서 더욱 흠없는 성군의 모습을 재현하여 균열 없는 성군담으로 구성될 때 독자의 공감은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텍스트와 관련성이 적은 후반부의 유연의 효우의식은 독자에게 비판적으로 읽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선행텍스트를 질료로 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서사를 구성하는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 방식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서사 기제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유효공선행록>의 상호텍스트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구성 양상과 이러한 다층적 서사 구성이 독자의 독서 과정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논의하였다.

<유효공선행록>이 참고한 선행텍스트는 ‘우순의 서사’와 ‘명효종의 역사’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의 서사는 ‘우순의 서사’ 중 우순의 효우담을 근간으로 유연의 효우담을 구성하였고,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서사’ 중 우순의 성군담을 근간으로 태자의 성군담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서사 구성은 선행텍스트를 후행텍스트에서 두 개의 서사를 상호 보완적 관계로 통합한 것이다. 또한 태자의 서사는 우순의 성군담과 함께 ‘명효종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효종의 성군담이라는 유사 의미를 중첩적으로 재현하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를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구성은 독자의 독서 과정에 일정한 작용을 하게 된다. 1차적으로 독자는 <유효공선행록>을 읽을 때 선행텍스트와 후행텍스트의 반복소를 찾기 위한 지적인 독서 활동과 후행텍스트의 다층적인 서사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적 소설 읽기 활동을 활성화하게 된다. 또한 두 텍스트간의 반복소를 찾고 다층적인 서사 구성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독자는 상호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는 소설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당대의 윤리적 가치를 자기 신념으로 삼으면서 자기 의식을 수련하는 독서를 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 독자는 통합적 관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독자는 공감과 비판이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선행텍스트의 효우의식과 성군의 의미가 그대로 재현되거나 그 의미가 강화될 때 공감을 느끼지만 선행텍스트와 관련성이 낮아질 때 비판적 시각으로 텍스트를 읽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인 상호텍스트 구성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지적인 소통, 자기 인식의 수련, 공감적 소설

읽기를 유도하는 서사 기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을 읽는 묘미는 단순히 내용과 의미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양과 껍질처럼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선행텍스트를 찾아내고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의 특징을 논의하고 다층적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이 독자의 지적 측면, 윤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에 작용하는 독서 메커니즘을 구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고전소설의 전반적인 상호텍스트적 서사 구성의 특질과 성격을 연구하는 작업을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기동 편, <유효공선행록>, 『필사본고소설전집』15, 16, 아세아문화사, 1980.
- 사마천, 정범진 외 옮김, 『사기본기』, 까치, 1994.
- 성백효 역주, 『현토완역 서경집전』, 전통문화연구회, 1998.
- 강우규, 「유효공선행록의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어문논집』 57집, 중앙어문학회, 2014, 35~50쪽.
- 김문희, 「劉孝公善行錄의 인물에 대한 共感과 距離化의 讀書心理」, 『어문연구』 15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231~255쪽.
-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3, 1~62쪽.
-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2004, 179~226쪽.
-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5, 151~176쪽.
-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151~171쪽.
-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문제」, 『고소설연구』 4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53~292쪽.
-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孝友의 의미와 作家意識」, 『선청어문』 19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162~184쪽.
-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171~199쪽.
- _____, 「대하소설 속 親同氣간 善惡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4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문화연구원, 2013, 339~361쪽.
- 林廷淸, 「明史研究의新成果-《弘治帝》讀后」, 『史學集刊』, 1996, 3기, 78~79쪽.
-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412쪽, 444쪽, 445~446쪽.
-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209~229쪽.
- 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호, 배달말학회, 2009, 223~269쪽.

-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孝悌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집, 우리 문학회, 2014, 288~320쪽.
- 조광국, 「閨閥小說의 孝 具現樣相에 대한 연구-閨閥小說 전개의 한 측면」, 『어 문연구』 12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135~160쪽.
- _____,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閨閥家門의 自己更新」, 『한중인문학연구』 16집, 한중인문학회, 2005, 145~170쪽.
- _____,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응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165~188쪽.
- 중국사학회 엮음, 강영매 옮김, 『중국통사』 4, 범우, 2013, 74~83쪽.
- 진순신 지음, 박현석 옮김, 『진순신 이야기중국사』 6, 살림, 2014, 167~175쪽.
- 陣時龍, 「守成令主-朱祐樞小傳」, 『紫禁城』, 故宮博物院, 2009, 8期, 24~25쪽.
- 최길용, 「유효공선행록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07집, 국어국문학회, 1992, 131~160쪽.
-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에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집, 한국문학회, 2005, 189~209쪽.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지음,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2004, 193~210쪽.
- 후민·마쉐창 지음, 이원길 옮김, 『중국을 말한다』 3, 신원, 2008, 117~125쪽.
- 앤 팔루던, 이동진·윤미경 공역, 『중국황제』, 갑인공방, 2004, 170~180쪽.

ABSTRACT

The Multi-layered Intertext Narrative Construction of
Yuhyogong seonhaengnok and Reading Process

Kim, Mun-he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multi-layered intertext narrative construction of *Yuhyogongseonhaengnok* from intertextual perspectives and explore their effect upon the reading process. The precedent texts of *Yuhyogongseonhaengnok* are The Narratives of Usun and The History of Myeonghyojong. The main story of *Yuhyogongseonhaengnok*, Yuyeon's narrative constructs the story of Yuyeon's filial piety and friendship based on Usun's story of filial piety and friendship in The Narratives of Usun. The sub-story of *Yuhyogongseonhaengnok*, the Prince's narrative constructs the Prince's story of a wise king based on Usun's story of a wise king in The Narratives of Usun and King Hyojong's story of a wise king depicted in The History of Myeonghyojong. In this regard, Yuyeon's narrative as a story of filial piety and friendship and the Prince's narrative as a story of a wise king are an integration of precedent texts in a complementary relation. Reproducing Usun's and Myeonghyojong's comparable narratives, the Prince's narrative as a story of a wise king makes *Yuhyogongseonhaengnok* a multi-layer intertext. This multi-layer intertext narrative construction of *Yuhyogongseonhaengnok* takes certain effects upon the reading process. In the first place, readers of *Yuhyogongseonhaengnok* have their intellectual communication activated with the text. They look for reciprocated elements in the precedent and the subsequent texts, during which process the readers are engaged in intellectual reading activities. In the second reading process, readers train their self-awareness by adopting the ethical values of the time as their faith. In the third reading process of *Yuhyogongseonhaengnok*, readers take a double-sided

attitude of empathy and criticism towards the sense of filial piety and friendship and the concept of a wise king.

Key Words *Yuhyogongseonhaengnok*, The Narratives of Usuns, The History of Myeonghyojong, multy-layered intertext construction, reading process

논문투고일 : 2015. 5. 5

심사완료일 : 2015. 5. 25

게재확정일 : 2015. 6. 4

